

[붙임] 2학년 연설문

BTS' Kim Nam Jun (RM) at the UN General Assembly



"My name is Kim Nam Jun, also known as RM, the leader of the group BTS. It's an incredible honour to be invited to an occasion with such significance for today's young generation.

We have been partnering with UNICEF's #ENDviolence program to protect children and young people all over the world from violence.

I am still an ordinary, twenty-four-year-old guy. If there's anything that I've achieved, it was only possible because I had my other BTS members by my side, and because of the love and support of our ARMY fans.

"Maybe I made a mistake yesterday, but yesterday's me is still me. I am who I am today, with all my faults. Tomorrow I might be a tiny bit wiser, and that's me, too. These faults and mistakes are what I am, making up the brightest stars in the constellation of my life. I have come to love myself for who I was, who I am, and who I hope to become. "I would like to say one last thing.

"After releasing the "Love Yourself" albums and launching the "Love Myself" campaign, we started to hear remarkable stories from our fans all over the world, how our message helped them overcome their hardships in life and start loving themselves. These stories constantly remind us of our responsibility.

"So, let's all take one more step.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I would like to ask all of you. What is your name?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 beat?

"Tell me your story. I want to hear your voice, and I want to hear your conviction.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ur, gender identity: speak yourself.

"Find your name,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I'm Kim Nam Jun, RM of BTS.

"I'm a hip-hop idol and an artist from a small town in Korea.

"Like most people, I made many mistakes in my life.

"I have many faults and I have many fears, but I am going to embrace myself as hard as I can, and I'm starting to love myself, little by little.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 Thank you very much.

Malala Yousafzai: Nobel Peace Prize acceptance speech(2014)



Dear sisters and brothers, today is a day of great happiness for me. I am humbled that the Nobel Committee has selected me for this precious award.

This award is not just for me. It is for those forgotten children who want education. It is for those frightened children who want peace. It is for those voiceless children who want change.

We had a thirst for education, we had a thirst for education because our future was right there in that classroom. We would sit and learn and read together. We loved to wear neat and tidy school uniforms and we would sit there with big dreams in our eyes. We wanted to make our parents proud and prove that we could also excel in our studies and achieve those goals, which some people think only boys can. Girls were stopped from going to school.

When my world suddenly changed, my priorities changed too. I had two options. One was to remain silent and wait to be killed. And the second was to speak up and then be killed. I chose the second one. I decided to speak up.

The terrorists tried to stop us and attacked me and my friends who are here today, on our school bus in 2012, but neither their ideas nor their bullets could win. We survived. And since that day, our voices have grown louder and louder.

This is where I will begin, but it is not where I will stop. I will continue this fight until I see every child, every child in school.

We have already taken many steps. Now it is time to take a leap.

Why is it that giving guns is so easy but giving books is so hard? Why is it that making tanks is so easy, but building schools is so hard?

We are living in the modern age and we believe that nothing is impossible.

Let us become the first generation to decide to be the last that sees empty classrooms, lost childhoods, and wasted potentials.

Let this be the last time that a girl or a boy spends their childhood in a fac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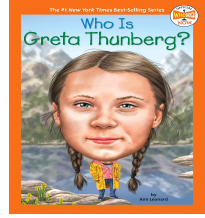
Let this be the last time that a child loses life in war.

Let this be the last time that we see a child out of school.

Let this end with us.

Let's begin this ending together, today, right here, right now. Let's begin this ending now. Thank you so much.

Greta Thunberg, at the UN Over Climate Change



"My message is that we'll be watching you.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For more than 30 years, the science has been crystal clear. How dare you continue to look away and come here saying that you're doing enough, when the politics and solutions needed are still nowhere in sight.

"You say you hear us and that you understand the urgency. But no matter how sad and angry I am, I do not want to believe that. Because if you really understood the situation and still kept on failing to act, then you would be evil. And that I refuse to believe.

"There will not be any solutions or plans presented in line with these figures here today, because these numbers are too uncomfortable. And you are still not mature enough to tell it like it is.

"You are failing us. But the young people are starting to understand your betrayal.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are upon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We will not let you get away with this. Right here, right now is where we draw the line. The world is waking up. And change is coming, whether you like it or not. "Thank you."

방탄소년단 김남준(RM)의 UN 연설



제 이름은 김남준이며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즈음 젊은 세대들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아이들과 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니세프의 End Violence (폭력근절) 프로그램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스물 네 살의 평범한 청년일 뿐입니다. 제가 성취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제 곁에 다른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있어주었고, 전 세계에 있는 저희 팬, 아미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저는 어제 실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제의 저도 여전히 저입니다. 오늘의 부족하고 실수하는 저도 역시 저입니다. 내일,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현명해질지도 모릅니다. 이 또한 저입니다. 이런 실수와 잘못들 모두 저 자신이고, 제 삶의 별자리의 가장 밝은 별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과거의 나, 그리고 제가 바라는 나 이 모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LOVE YOURSELF 앨범을 발매하고, LOVE MYSELF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우리는 전 세계의 팬들로부터 소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 자신을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말이죠. 이 이야기들은 저희에게 계속 책임감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한 발짝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말해보세요.'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설레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신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피부색이 어떤지, 성 정체성이 어떤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자신의 이름을 찾으세요, 자신을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으세요.

저는 김남준이고, 방탄소년단의 RM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돌이자, 한국의 작은 마을 출신의 아티스트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처럼 저도 제 인생에서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은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 자신을 끌어안고 천천히 그저 조금씩 더 제 자신을 사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말라라유사프자이: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2014)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이 제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날입니다. 노벨 상 위원회에서 제게 이런 고귀한 상을 주시다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상은 저를 위한 상이 아닙니다.

이 상은 교육받기 원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어린이와 변화를 원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어린이를 위한 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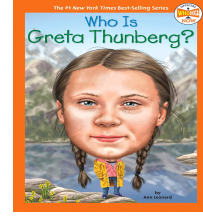
우리는 교육에 목말라 있습니다. 앉아서 배우고 함께 읽는 바로 그 교실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끔한 교복을 입고 앉아서 눈에는 큰 꿈을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목표를 달성하여 부모님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 남자아이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자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의 세상이 바뀌었을 때 제 모든 것도 바뀌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만히 침묵을 지키면서 죽는 것, 다른 하나는 당당히 말하고 나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는 저를 막으려고 했고, 2012년 오늘 여기 함께 온 제 친구들과 제가 탄 통학버스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총알 모두 저희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날 이후로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진보를 거두었고, 이제는 도약할 때입니다. 총을 주는 것은 쉽게 하면서 책을 주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탱크는 쉽게 만들면서 학교를 짓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를 끝으로 텅 빈 교실과 유년시절이 박탈되고 잠재력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공장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는 것을 끝나도록 합시다. 어린이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일도 끝나도록 합시다. 어린이가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도 끝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끝냅시다. 이 모든 끝맺음을 오늘 바로 여기에서 함께 시작합시다. 지금 끝낼 수 있도록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레타 툰버그, UN 기후변화 연설



저의 메시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지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 안됩니다. 저는 바다 반대편에 있는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공허한 말로 내 꿈과 어린 시절을 훔쳐갔습니다. 그나마 저는 행운아 중 한 명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량 멸종의 시작 지점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오로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30년 이상 동안 과학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필요한 정치와 해결책이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데, 어떻게 여러분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하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외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절박함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저의 슬픔과 분노와는 상관없이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악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를 거부합니다.

여기 이 수치들에 맞추어 어떤 해결책이나 계획도 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들은 너무나 불편한 사실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으며,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의 배신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미래세대의 눈이 여러분에게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싫든 변화는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